아시아교육연구 17권 3호
Asian Journal of Education
2016, Vol. 17, No. 3, pp. 379-408.

연구중심대학 석사과정 학생의 대학원 학습경험에 대한 연구

임희진(林希珍)*
김소현(金素賢)
박혜연(朴惠姸)
김경호(金敬鎬)

논문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석사과정 학생들의 대학원 학습경험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대학원 교육의 실제와 특징을 밝히고 그 양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국내 주요 연구중심대학인 A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석사과정 학생 21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 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다수의 학생들은 대학원 생활에 대한 불명확한 정보를 토대로 왜곡된 기대를 가지고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학문공동체의 공식 일원"으로서 "하고 싶은 공부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기대와 실제의 간극은 전공 영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둘째, 면담에 참여한 석사과정 학생들은 대학원 교육의 주를 이루는 주요 문화적 요소로 '방임적인 문화'를 제기하였으며 지도교수와 전공의 '자율'과 '무관심'의 경계 속에서 '불친절하고 불성실한' 교육을 경험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이러한 대학원의 방임적 문화는 학생들로 하여금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학습 태도 및 사고의 확장을 경험할 수 있는 순기능의 역할도 일부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석사과정 학생들은 대체로 대학원에 진학하기 전 자신의 학업 및 직업 선택에 대한 매우 장기적이고도 구체적인 진로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석사과정에서의 일련의 경험을 통해 이들의 진로계획은 단기적이고 불명확하고 비관적인 형태로 변질되는 특징을 보였다.

주요어 : 대학원교육, 석사과정, 대학원생 학습경험, 연구중심 대학

* 제1저자,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Ⅰ. 서론

지난 30년 간 한국의 대학원생 규모는 빠른 속도로 팽창해왔다. 2015년 기준 국내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 수는 총 333,478명으로 (석사과정 260,920명, 박사과정 72,558명) 이는 1985년의 대학원 학생 수인 40,377명(출처: 교육통계연보)에 비해 약 6.5배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양적 팽창의 배경에는 지식기반사회와 고학력사회의 도래를 들 수 있다. 현대의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것은 더 이상 천연자원 또는 상품을 생산하는 제조업 등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고급인력의 중요성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석·박사 학위를 소지한 고급 인력에 대한 산업의 수요와 이러한 인력을 배출하는 대학원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 및 강조되고 있다(신현석, 2011). Trow(1974)에 의하면 한국의 학부 교육은 이미 보편화(universal)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와 맞물려 대학원 교육 역시 대중화 및 보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송창용, 2013).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정부의 정책적 관심 또한 학부 교육에서 대학원 교육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1990년대 후반의 BK21(Brain Korea 21) 사업을 시작으로,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WCU) 등 대학원 교육과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우수한 연구 인력 양성을 유도하는 국가 주도의 여러 정책들이 도입되었다. 그 결과 BK21 사업 이후 전임교원 1인당 논문편수 및 논문 인용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는 국내 대학의 연구 역량의 비약적인 양적 성장을 직접적으로 나타낸다(백일우, 박경호, 2007). 또한 BK21 사업은 대학원생들에게 논문발표 기회를 제공하고 해외연수 지원을 통한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우수 학문 후속세대를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김병주 외, 2005). 이를 토대로 최근 10여년 간 국내 주요대학들은 세계 대학평가 지표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며 진정한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본격적인 발판을 다지고 있다.

한편, 이처럼 국내 대학기관들이 세계 수준의 대학으로 발돋움하려는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이고 있다고 보았을 때 과연 연구중심 대학의 핵심적 기능을 차지하고 있는 대학원 교육의 질 역시 세계적 수준에 다다르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동안 국내 대학원 교육은 급속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면에 존재하는 문화적, 제도적 특수성, 그리고 열악한 교육 및 연구 환경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지적받아 왔다(송창용 외, 2012). 대표적으로 김종영(2008)은 미국으로 박사과정 유학을 간 상당수의 학생들이 유학 동기로 한국 대학원에서 관찰했거나 경험한 일상적인 권위주의, 비윤리성, 폐쇄성 등 비민주적 문화를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대학원 운영과정의 부실로 인해 국내 대학에서 수여되는 석·박사 학위의 신뢰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는 대학교수 채용 과정에서 외국박사학위 소지자가 우대되는 현실과 직결된다(한상연·김안나, 2009). 더 나아가 일부 연구중심대학에서는 학부학생 대비 대학원생의 규모가

벌써 거의 비슷해지거나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내 거버넌스에 대한 대학원생의 참여는 매우 미비하거나 전무한 실정이며 이는 학문 공동체 내 대학원생의 낮은 위상 및 입지를 나타낸다. 대학원생의 인권 문제 역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서울대학교 인권센터(2015)에서 발간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상당수의 대학원생들은 교수와의 관계, 그리고 동료 및 선후배와의 관계에서 인권 문제를 경험한 경우에도 제도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내 대학원 교육 및 시스템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점들이 학문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공공연하게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교육의 실재를 규명하거나 파헤쳐 보려는 학술적, 정책적 노력은 매우 미비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동안 대학원 교육과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들은 주로 교수와 대학원생의 연구 성과 또는 생산성을 측정하거나(김진영, 2015; 우양호·고경동, 2015; 장수명·최상덕, 2009), 매우 단편적인 수준의 대학원 교육 여건 및 만족도를 조사하는 수준에 머물렀다(정은성, 2015; 강병숙, 2013; 최진호, 2010; 이선정·신혜원, 2008; 임승렬, 2005).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연간 학술지 게재 논문수로 교수 및 대학원생의 연구 성과와 연구 생산성을 측정하였으나 (김진영, 2015; 우양호·고경동, 2015; 장수명·최상덕, 2009) 해당 연구들의 결과는 국내 대학원 교육을 둘러싼 환경 및 성과를 일부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할 뿐 이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대학원 교육의 과정적 측면은 제공하지 못한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대학원 교육 여건 및 만족도 설문지를 활용한 연구들의 경우 주로 정책 연구에 활용되는 근거 자료로 사용되어 왔으며, 이는 우리나라 대학원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추세를 파악하는 데는 유용할 수 있으나 제한된 범위의 문항들이 사용되어 실제 학생들의 경험 및 인식이 설문 결과에 질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즉, 대학원 교육의 질적 수준 및 여건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학생 경험 차원의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원 교육의 실제와 특징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 주요 연구중심대학 석사과정 대학원생의 대학원 학업 경험에 대해 질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대학원 과정 중에서도 특히 석사과정에서의 경험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석사과정은 본격적인 학문·연구 공동체에 진입하는 단계로, 학문 세계에 첫 발을 내딛는 시기에 해당한다(Conrad et al, 1998). 따라서 학생들이 학부과정에서 대학원 석사과정으로의 이동을 통해 경험하고 맞닥뜨리게 되는 다양한 전환적 요소, 즉 '학생'에서 '연구자'로의 새로운 정체성 형성 및 적응 과정은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박사과정으로의 전환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변화와 뚜렷한 특징을 수반한다. 더 나아가 이 시기의 경험은 학생이 계속해서 학업을 해나갈 것인지, 그리고 만약 학업을 지속한다면 국내에서 할 것인지 혹은 국외에서 유학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들이 인식하는 국내 대학원 교육의 문화 및 제도적 특징

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학생들이 대학원에 진학하기 전에 가지고 있는 기대와 실제 입학 후의 경험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이들의 학습경험, 교수 및 동료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토대로 중점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학생들의 적응 과정 또는 양상을 파악하는 것은 국내 대학원 교육 발전에 있어 학술적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Ⅱ. 이론적 배경

그동안 대학원생의 학습경험을 분석하는데 사용되어온 대표적인 개념 및 이론으로 대학원생이 학문 공동체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독립된 연구자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사회화(socialization)' 관점이 활발히 사용되었다. 대학원생의 학습경험을 사회화 측면에서 탐색한 연구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은 미국으로, 해당 지역의 경우에는 대학 및 대학원의 높은 등록금과 부족한 재정적 지원, 학생의 긴 학업기간과 졸업의 지연, 학위와 진로간의 불일치, 그리고 높은 중도탈락률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사회화' 과정이 대학원 학습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는 제시하고 있다 (Baird, 1993; Tinto, 1975; Council of Graduate Schools, 1990; Lovitts, 2001; Weidman et al, 2000). 미국과 한국의 대학원 교육을 둘러싼 환경과 여건이 다소 상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서구식 맥락에 기초를 둔 이론적 배경을 전적으로 국내 상황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해당 이론은 지역을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대학원 적응과 관련된 경험 양상을 밝히고 분석하는데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를 토대로 국내와 국외 대학원 교육에서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대학원생의 사회화(socialization)

넓은 의미에서 '사회화'란 특정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이 그 속에 있는 구성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기질 등을 얻는 과정을 말한다(Brim, 1966). 사회화라는 개념은 1900년경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뒤르케임(Emil Durkheim)에 의해서 처음으로 사용되면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다루어지게 되었다. 현재 이 개념은 인간과 사회의 상호관계를 연구하는 모든 개별 학문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최종인, 2007). 이러한 사회화의 개념은 대학원 교육에서도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독립된 연구자 및 학자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학원 교육에서 성공적인 사회화 과정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대학원생의 사회화 과정은 전문화되

고 특화된 영역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 규범 등을 학생이 습득하고 체화하는 과정에 집중한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Golde, 1998). 대학원생의 사회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을 구축한 것은 Weidman et al. (2001)로 이들은 대학원생의 사회화 과정을 예비(anticipatory) 단계, 공식(formal) 단계, 비공식(informal) 단계, 개인적(personal) 단계로 구분하였고, 학생들은 이러한 일련의 단계를 거치면서 신입 연구자에서부터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한다. 특히 대학원생은 이중적으로 사회화를 경험하는데 첫째는 새로운 역할(학생 및 연구자)에 대한 사회화와 특정 학문 및 기관의 규범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화가 동시에 수반된다. 이러한 대학원생의 사회화 과정을 각 단계별로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상 (anticipatory)단계는 시기적으로 대학원생의 입학 직전 시기 및 초기에 해당한다. 대학원 신입생은 이 단계에서 대학원생의 사회적 역할과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문 분야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특정 기대치를 가지고 진학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대는 언론을 통해 투영되는 대학원 및 대학원생의 모습, 대학원에 재학 중인 지인, 사회적 통념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축적된 정보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학생 개개인마다 대학원 생활에 대한 입학 전 기대는 이들이 획득한 정보의 질에 따라 왜곡되거나 혹은 정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 시기에 대학원 신입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소속 전공 및 학과에서 이들에게 요구하는 행동적, 인지적 기대와 마주하게 되며, 이 과정 속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일종의 '충돌'은 입학 전에 가지고 있던 기대의 정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둘째, 공식(formal) 단계에서는 학생의 소속 학과 및 전공의 공식적이고 규범적인 역할 기대를 본격적으로 관찰하고 인지하게 되는 단계이다(Thorton and Nardi, 1975). 학생은 소속 학과에서 요구하는 역할기대를 수동적으로 관찰하며, 교수 또는 선배 학생들로부터 일방적으로 정보를 수신하는 경험을 한다(Gardner, 2007). 특히 이 단계에서 학생들은 코스웍 및 교육과정 등 공식적인 대학원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에 참여하기 시작하며 프로그램의 질에 따라 학생이 해당단계에서 경험하는 사회화의 정도도 달라질 수 있다.(Bucher and Stellings, 1977). 셋째, 비공식(informal) 단계에서 학생들은 전공 내의 비공식적인 규범과 문화를 본격적으로 습득하게 된다(Thorton and Nardi, 1975). 이 시기부터 학생들은 일종의 동료문화를 형성(Starton and Darling, 1989)함과 동시에 이제 전문가로서의 스스로를 인식하기 시작한다(Rosen and Bates, 1967).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개인을 둘러싼 전공 구성원의 특징이나 동료문화에 따라 학생이 경험하는 사회화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personal) 단계에서는 앞선 단계에서 습득한 다양한 역할 및 규범에 대한 이해와 자신의 전공 분야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 및 역량 등이 단단히 결합되고 내재화 되어간다. 이에 따라 학문적 목적이 구체화되고 본격적으로 연구자로서 자신의 가치관을 확립하게 되며 주로 학위 논문을 완성한 후 졸업 단계에 해당한다(Weidman, Twale, and Stein, 2001).

특기할 점은, 위의 4단계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석·박사 통합 시스템의 관점에 기반 한다는 점

이다. 미국 대학원 시스템의 경우, 석·박사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며 석사과정 학생(master student), 박사과정 학생(doctoral student)라는 별도의 구분이 없이 통합적으로 박사과정을 의미하는 '대학원생(graduate student)'이라는 표현이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1]. 즉, 미국에서의 '박사과정'의 초기 2년간은 사실상 한국의 석사과정에 해당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해당 모형에서 사회화의 최종단계(personal stage)는 독립된 연구자로 성장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졸업하는 대학원 교육의 종착점을 의미한다.

반면 우리나라 대학원의 경우 이·공학계열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석사, 박사과정이 독립된 형태로 분리운영 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대학원 신규 진입자의 학업 경험 및 적응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다. 미국식 맥락에 기초한다면 이러한 대학원 신규 진입자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신입 박사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박사과정 학생들은 이미 석사과정을 경험하고 진학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학원 신규 진입자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가 살펴보고자 하는 국내 대학원의 신규 진입자의 학습 경험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박사과정생이 아닌 석사과정생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비록 해당 사회화 모형이 우리나라의 대학원 시스템에 온전히 부합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본 이론에서 제시하는 초기의 몇 단계는 국내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들의 경험을 분석하고 논의하는 데 유용한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전공 및 개인 특성에 따른 대학원생의 학습 경험

대학원생들의 경험은 소속 학과의 문화 등의 전공별 특징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개별 학과 및 전공은 그들 나름의 규범, 가치, 지적 과업 등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고유의 문화를 향유하기 때문에(Austin, 2002; Becher, 1981) 대학원생들의 경험은 학생들이 어떤 학과에 소속되었는지에 따라서도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Turner et al., 2002). 일반적으로 학문 영역을 구분하는 기준은 학문의 기본적 속성에 따라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데 Biglan(1973a)은 이를 경성학문(hard)과 연성학문(soft)으로 분류하고 있다. 경성학문에 해당되는 학문으로는 자연과학, 공학, 농학 등이 있고, 연성학문에 해당되는 학문으로는 사회과학, 교육학, 인문학 등이 있다. 이러한 학문 영역의 구분에 따라 대학교수의 교수 및 연구 활동에도 차이가 나타나는데 경성학문의 경우에 교수는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연구와 대학원생에 대한 지도를 통합된 것으로 인식하지만, 연성학문의 경우에는 이러한 통합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학

1) 미국의 대학원 시스템은 연구중심대학일수록 별도의 석사과정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석사와 박사가 통합된 형태로 학생을 선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대체적으로 '박사과정' 전형으로 입학한 후, 종합시험에서의 탈락 또는 학생이 중도탈락을 할 경우 박사학위가 아닌 석사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생 지도와 본인의 연구를 이중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eumann, 2001). 이 때문에 경성학문에서는 교수와의 연구 협력이 대학원생 사회화 과정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기능하지만, 연성학문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독립적이고 방임적인 분위기 속에서 학습 및 연구를 하게 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Biglan, 1973b; Kuhn, 1962). 전종희(2013)는 협업이 구조화되어 있는 국내 공과대학 대학원에서의 프로젝트 경험을 통한 집단지성 양상에 대한 탐색을 시도하였는데, 그 결과 학생들은 교수와의 협업을 통해 교수의 지식, 경험, 안목과 같은 전문성을 습득하는 것을 가치 있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교수의 권위 등으로 인한 다양한 의견제시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집단지성이 효과적으로 발휘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 학생들은 이러한 프로젝트의 결과가 논문 혹은 특허 같은 학문적·실제적 결과와 연계될 때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반면 교육대학원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승렬(2005)의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은 교육대학원의 연구와 수업이 상호 연계성이 낮으며, 교수들은 자신의 연구 활동에 학생이 참여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어 학문간 상이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개별 학과 및 전공의 문화의 핵심에는 고유의 도덕적 질서가 자리 잡고 있다 (Ylijoki, 2000). 이러한 도덕적 질서는 소속 구성원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규범적인 권력이면서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의 기능도 하기 때문에, 대학원생이 학과 문화의 도덕적 질서에 성공적으로 몰입하거나 개인의 기준 및 성향과 해당 규범이 일치할수록 상대적으로 사회화가 잘 이루어지며 성공적인 대학원 생활을 할 수 있다. 컴퓨터공학과, 화학과 같은 경성학문에서는 전문가 지향성(professional orientation), 기업주의(entrepreneurships)가 강조되거나, 협력 연구에 기반을 둔 고유한 실험실 문화(lab culture)가 존재하기도 한다(Ylijoki, 2000). 이러한 이공계열 전공에서의 실험실 문화는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김민선 외(2016), 박진희, 박희제(2008) 등의 연구에 따르면 국내 이공계 대학원생들은 실험실 내에서 나이 및 연차 그리고 성별에 따른 서열구분을 바탕으로 다양한 암묵적 규율들을 경험하며 군대식 위계질서, 사수-부사수의 관계 등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러한 서열 문화는 전공계열을 막론하고 우리나라 맥락에서 특수하게 나타나는 대학원 문화 중 하나이다. 이유경(2014)의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원에 진학한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적응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대학원 문화의 특징을 일부분 밝히고 있으며 이는 교수의 권위주의적 태도, 선후배관계의 위계질서, 강제적인 대학원 모임 등으로 나타났다.

소속 전공 영역 외에 학생의 개인적 특성 및 개인의 환경과 상황 또한 대학원생의 학습 경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컨대 학생의 연령, 결혼 여부, 자녀 유무 여부, 학위 유형(전일제 학생과 파트타임 학생의 차이), 사회경제적 배경, 국적 및 인종 등 개인적 배경에 따라서 다양한 경험적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Gardner, 2008). 파트타임 학생의 경우, 전일제 학생보다 개인 생활(예:

가정 또는 직장)과 학업의 균형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교수나 동료학생의 지원보다는 가족, 소속직장의 지원이 학업을 유지하는데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전일제 학생들에 비해 교수 및 동료학생간의 상호작용이 비교적 약하기 때문에 대학원 생활에서 고립을 겪게 되면서 스스로 학업을 감당해야 한다는 큰 부담을 가지게 된다(안유리·이대균, 2012; Gardner, 2012). 한편, 일부 연구들은 젠더(gender)의 관점에서 국내 대학원 문화를 고찰하기도 하였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 대학원생의 경우, 많은 부분에서 대학원의 남성중심의 문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여성들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들의 의견이 암묵적으로 배제되거나 묵살당하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안상수 외, 2011; 진미석 외, 2007; 이유경, 2014). 이 과정에서 여학생들은 남성위주의 규범, 규율에 저항하며 스스로에 대한 정체감을 형성하는데 고군분투하게 되고, 이러한 규율권력과의 갈등에 대한 타협점을 찾으며 여성연구자로서의 행동양식을 재생산하는 과정을 보인다(이유경, 2014). 외국인 학생의 경우, 학생은 국가 간 문화의 차이에 의해 사회, 문화적으로, 그리고 학문적으로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고, 더불어 사회생활 및 학문을 위한 언어 능력의 향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Kwon, 2013). 또한 외국인 학생에 대한 동료학생의 무관심으로 인해 학우관계형성에서 장벽을 경험하는 등의 특징이 나타났다(Ward, Bochner, & Frnham, 2001, Kwon, 2013). 한국의 경우 북미 및 유럽 지역과 비교했을 때 대학 구성원의 특성이 비교적 동질적이나 최근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의 일환으로 학부 및 대학원의 구성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석사과정 학생들은 일반적인 내국인 학생들로, 추후 연구를 통해 외국인 대학원생들이 경험하는 한국에서의 대학원 교육이 보다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국내의 대표적인 연구중심대학인 A대학교 대학원의 석사과정생의 적응 및 학습경험의 양상을 다차원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면담을 기초로 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A대학교는 국내 유수 대학 중 하나로 국내를 대표하는 연구중심 대학이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학원 육성 정책의 최대 수혜자이다. A대학교의 연구중심 특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학부생 규모 대비 대학원생 규모가 타 대학에 비해 매우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A대학교의 전체 학생 규모는 2015년 기준 총 28,490명이며 이 중 대학원 재학생 수는 11,979명으로 전체의 42%에 해당한다. 대학원 재학생 규모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총 11,979명 중 석사과정생

8,309명, 박사과정생 3,670명으로 석사과정에 해당하는 학생이 전체 대학원생 규모의 69.4%를 차지한다(출처: A대학 통계연보, 2016). 또한 학부생의 대학원 진학률은 35%로, 국내 대학생의 대학원 평균 진학률이 10%임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출처: 전국대학통계연보, 2015). A대학은 한국을 넘어선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결과 최근 10년 동안 세계대학평가 순위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QS세계대학순위 기준 A대학교는 2004년 118위로 시작하여 10년 뒤인 2014년에는 31위에 오르는 성과를 보였다. 이를 토대로 A대학은 2025년까지 세계 10위권 대학으로의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A대학의 대학원과정 중도탈락률은 2014년 기준 4.3%로, 이는 평균 대학원생 중도탈락률이 약 30%[2)]에 육박하는 미국에 비해 그 비율이 월등히 낮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비록 과정 중 중도탈락률은 낮지만 A대학의 석사학위 취득자의 동 대학 박사과정 진학비율은 2015년 기준 14.7%에 그치고 있어 대부분의 석사 과정생들이 석사 학위 취득 후 학업을 중단하거나 해외 유학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008년 기준 미국국립과학재단(NSF)에서 조사한 미국 대학 박사학위 취득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학부 대학 출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기관은 자국의 UC Berkeley이며 그 뒤를 잇는 대학이 흥미롭게도 한국의 A대학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A대학의 석사학위 취득자가 상당수 해외 대학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증거로써 본 연구에서 삼고 있는 문제의식 중 인재유출에 대한 현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구대상으로써의 A대학이 가지고 있는 주요 의미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시스템에 있어서 차지하는 위상 및 상징성이 매우 크다는 점과, 정부의 대학 관련 정책 및 패러다임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초기 채택자(Early Adapter)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A대학이 채택하는 정책과 그에 대한 결과가 곧 국내 다른 대학의 선례 및 주요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국내 대학기관의 교원 상당수가 A대학에서 학부 또는 대학원 과정을 경험한 자들로써 이들은 졸업 후 임용된 대학(원)에서도 자신들이 경험한 문화 또는 사회화 과정을 재생산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연구 참여자 모집 과정은 다음과 같다. 일차적으로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연구 참여자를 공개 모집한 후 전공계열, 성별, 재학 학기 등을 고려하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석사과정의 재학 학기 분포를 살펴보면 신입학 단계에서부터 코스웍을 모두 마치고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6학기 석사 수료생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학문적 특성을 살피기 위한 전공으로는 인문•사회학 및 이·공학 계열이 균일하게 나타나도록 하였다. 총 연구 참여자의 수는 21명으로 남학생 10명, 여학생 11명이다. 단과대 분포로는 인문대학 4명, 사범대학 5명, 사회대학 4명, 자연대학 3명, 공과

2) 1992년부터 2004년까지 12년간의 종단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대학의 대학원생 평균 중도탈락률은 전공에 따라 26%(인문사회계열)에서 37%(이공학 계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Council of Graduate Schools, 2007).

대학이 5명이며 평균 연령은 약 27.5세이다. 연구 참여자 전원이 전일제 학생들이며 이들 중 석박통합 과정의 학생은 총 4명이다. 보편적으로 A대학 석박통합 과정의 경우 3년차부터 박사과정생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을 참고하여 2년차 미만의 석박통합 학생들만 연구에 포함하였다. 참여자 모집 과정에서 의약계열, 법학전문대학원, 예체능계열은 표집에서 제외하였는데 그 이유는 전문·특수 대학원의 경우 졸업생들의 진로가 일반대학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명확하다는 점과 교육과정 운영 등에 있어 일반대학원의 석사과정생들이 경험과는 다른 특성이 나타날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1> 연구 참여자의 인적사항

구분	성별	전공계열	나이	학기	석박통합여부
A	남	인문대학	27	신입학	·
B	여		29	1학기	·
C	남		28	2학기	·
D	여		28	6학기	·
E	여	사범대학	27	신입학	·
F	여		27	2학기	·
G	여		32	2학기	·
H	여		26	2학기	·
I	여		26	2학기	·
J	남	사회대학	26	3학기	·
K	여		27	4학기	·
L	남		29	4학기	·
M	여		27	5학기	·
N	남	자연대학	27	2학기	○
O	남		23	2학기	○
P	남		27	4학기	·
Q	남		27	2학기	·
R	남	공과대학	27	2학기	·
S	남		27	2학기	○
T	여		31	2학기	·
U	여		28	3학기	○

2. 자료수집 방법 및 분석 절차

본 연구는 석사과정 학생들의 대학원 생활 및 적응 양상을 통해 국내 대학원 교육을 둘러싼 문화적, 제도적 특징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학생들의 생활을 둘러싼 다양한 인식 및 경험

을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를 통한 단편적인 분석보다는 질적 연구가 보다 효과적이다. 자료 수집을 위해서 반구조화 된 면담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사전에 준비한 질문지를 바탕으로 실시되므로 제한적인 시간 내에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면담 횟수가 한정적이고 면담자가 다수일 때 가장 효과적이다(Bernard, 1988). 면담을 위한 질문지는 선행연구 및 예비면담 결과를 참고하여 5개의 큰 범주(대학원 입학 동기, 전공 및 프로그램의 특성, 대학원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 학업 및 연구 활동, 진로 계획)를 잡고 약 15개의 세부질문을 작성하여 완성하였다. 보다 세부적인 질문의 구성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세부질문 내용

범주	질문내용
대학원 입학 동기	대학원에 입학하게 된 동기
	해당 전공을 선택한 이유
	대학원에 진학하기 전 기대했던 입학 후 생활
	대학원 입학 시에 알고 있었던 정보 및 정보의 취득 경로
전공 및 프로그램의 특성	소속 전공의 문화적 특징
	소속 전공의 학업 분위기
대학원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	지도교수와의 관계
	대학원 동기 및 선후배들과의 관계
학업 및 연구 활동	수업에 대한 만족도
	관심 연구주제 탐색 과정
	대학원 진학 후 어려웠던 점과 만족스러운 부분
진로 계획	(박사 진학인 경우) 박사 진학에 대한 이유
	(박사 진학 포기) 박사 진학 포기에 대한 이유
	(유학인 경우)유학을 결정한 이유
	궁극적인 커리어 목표가 무엇인지

면담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면담 시간은 평균 1시간~1시간 30분이 소요되었다. 면담에 들어가기에 앞서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녹취 및 연구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면담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모두 전사되었으며 연구진 모두 전사 자료를 반복하여 숙독하고 개방코딩(open coding) 작업을 통하여 면담 자료에서 나타나는 주요 테마와 개념 등을 도출하고, 축 코딩(axial coding)을 통해 각각의 테마가 가진 의미를 구조화 하는 작업을 거쳤다. 해석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면담자는 최소 2명 이상이 동시에 면담을 기록한 후 코딩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비교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또한 면담 내용의 모호성이 발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세부 사항을 확인하여 2차로 면담을 보충하기도 하였다. 자료의 1차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분석틀을 확립시켜 최종 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 결과

분석 결과 면담에 참여한 대다수의 학생들은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대학원 생활에 대한 왜곡된 기대 또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기대는 실제로 대학원 생활을 경험한 후 변질되어 실망하는 경우로 이어지고 있었다. 본 파트에서는 이들 석사과정 학생들의 대학원 학습 경험에 대한 결과로 크게 1) 대학원 생활에 대한 입학 전 기대와 실제 생활과의 간극, 2) 대학원 교육의 실제, 3) 또 다시 시작되는 진로고민 순서로 기술하고자 한다.

1. 대학원 생활에 대한 입학 전 기대와 실제 생활과의 간극

1)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라요“

대다수의 학생들은 대학원에 진학하기 전 나름대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학원 생활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최종적인 진학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기대했던 대학원의 모습과 실제 생활하면서 겪은 현실 속 모습에는 다양한 간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자’를 양성하는 기관으로써의 대학원의 기능을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히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만 할 수 있는 곳으로 생각하고 입학했거나, 전공 영역 자체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입학한 경우도 있어 혼란이 가중되었다.

> “저는 학부를 다니고 바로 온 케이스인데 학부와 대학원은 전혀 다른 곳에 온 것 같았어요. 같은 공간인데도 패턴이 너무 달라서.” (K, 사회대학 2학기, 여)

> “저는 사실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왔는데 여기는 공부보다는 연구를 하는 곳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인지를 더 많이 하고 와야 적응을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머릿속에서 그리던 대학원과 연구를 하는 대학원은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해요.” (I, 사범대학 3학기, 여)

> “ 첫 학기 때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랐고...저는 전공이 주로 사람들의 문화나 생활 이런 거를 다룬다고 막연히 알고 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이론적이고...좀 실생활과 거리가 먼 거 같았어요. 그래서 적응이 잘 안되었어요.” (M, 인문대학 5학기, 여)

뿐만 아니라 대학원을 ‘시간이 널널한 곳’, ‘한가롭게 책을 읽는 곳’, ‘아무런 간섭이 없는 곳’

등으로 인식하며 대학원 생활이 주는 여유와 낭만을 기대하며 입학한 학생들도 있었다. 이들은 주로 학부 졸업 후 직장생활을 한 후에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이거나 석사 졸업 후 연구자로의 진로보다는 취업을 고려하고 있는 학생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 "예전 학부 때처럼 시간적 여유가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막상 대학원은 방학도 없고 시간적 여유도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많지 않다는 점이 달랐어요. 저는 좀 쉬러 온 건데 (웃음)." (T, 공과대학 2학기, 여)

> "대학원 와서 느낀 게 생각보다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되는구나. 오기 전에는 이렇게까지 공부량이 많을 거라고 생각 안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수업 자체를 따라가는 것 자체로도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하고." (K, 사회대학 2학기, 여)

흥미로운 점은 대학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가장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하고 입학한 학생들은 대부분 이공계 소속의 학생들이었다는 점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대학원 진학을 결정한 후 본인의 관심 주제와 가장 일치하는 교수와 관련 연구실(랩)을 찾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일정 기간 해당 연구실에서 인턴직을 수행하며 연구실 분위기 및 연구 분야 등을 입학 전에 미리 파악하고 최종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공계 대학원의 인턴제도는 대학원 진학을 고려하는 학생 및 교수 사이에서 상당 부분 '제도화' 된 시스템으로 이들의 입학 후 대학원 생활 적응을 돕는 가장 효과적인 기제 중 하나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생들이 인턴 생활을 통해 가장 중점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개인의 관심주제가 연구실의 프로젝트와 얼마만큼 부합하는지에 대한 것과 연구실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저는 학부 3학년 여름방학 때 인턴을 했는데 연구하는 게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배우고 연구실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 사실 교수님이 학부생을 대하는 것과 대학원생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 딴판이잖아요. 그걸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 (O, 자연대학 2학기, 남, 석박통합)

이러한 인턴 시스템을 통해 얻게 되는 사전 정보는 A대학 학부를 졸업한 자대 출신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더 풍부하게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선배 및 동기의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해당 연구실의 분위기 및 인건비 조건 등에 대한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자신의 기대에 가장 부합한 연구실을 선택하여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타대 학생들은 자대 출신 학생들보다 대학원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대생들은 미리 교수들에 대한 파악이 다 되고 얘기도 많이 듣고. 근데 타대생들은 상대적으로 잘 모르니까 좋은 랩은 자대생들이 다 골라서 가요." (N, 자연대학 2학기, 남, 석박통합)

" 타대생들은 보통 뭣도 모르고 들어왔다가 피 보는 분들도 있죠. 안타깝게... 그래서 지도교수 바꾸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른 학교로 아예 도망가거나." (Q, 자연대학 2학기, 남, 석박통합)

한편, 이러한 인턴제도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공계열과는 달리 인문사회계열의 학생들이 대학원에 진학하기 전에 획득하는 정보는 상대적으로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입학 전 자신의 관심주제와 가장 부합되는 교수를 검색하고 연락하여 사전 면담을 주로 하며 교수로부터 대학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아니면 기존 재학생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정보를 구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사전 연락 또는 정보에 대한 접근이 거의 없는 상태로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입학 전 기대와 입학 후 실제 생활 간의 간극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공계열과는 달리 인문사회 계열의 경우 자대출신 학생들과 타대 출신 학생들 모두 공통적으로 대학원에서 이루어지는 학업 패턴의 변화에 대한 적응에 있어 비슷한 수준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는 특징이 있다.

2) "드디어 내가 하고 싶은 공부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본 연구에 참여한 대다수의 석사과정 학생들은 대학원 입학을 통해 비로소 본인이 원하는 주제 및 분야에만 집중할 수 있으며, 더 이상 자신의 관심과 상관 없는 주제는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대감을 가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A대학의 경우 학부과정의 학생들은 1학기당 최대 18~21 학점까지 수강하며(조장환 외, 2012) 전체 학위과정 동안 130학점을 취득해야하므로 학기당 상당히 많은 수의 과목을 수강해야 한다. 이처럼 학부 과정에서 학점 취득으로 인해 겪는 피로는 비단 A대학뿐만이 아니라 국내 대다수 대학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한 최근 대졸자들의 취업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대학생들의 학점이 취업 및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 사회의 흐름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많은 학생들은 본인의 흥미에 의해 과목을 선택한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쉽게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수의 학생들은 대학원 진학 전 학부 교육을 '백화점식 교육'으로 표현하며, 수강했던 과목들에 대체적으로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아쉬움을 나타냈다. 따라서 개인의 전공 영역이 학부과정에 비해 구체적으로 세부화 되는 대학원 과정에 진학하여 본격적으로 본인의 관심 분야에만 집중적으로 파고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다수의 학생들은 예상하였다.

하지만 실제 대학원에 입학한 후 석사과정 학생들은 곧 대학원 역시 오롯이 자신의 관심 분야에만 국한된 학습과 연구를 하는 곳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특히 이들은 본인의 관심 주제보다는 자신의 지도교수의 연구주제 또는 자신이 속한 연구실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그 과업에 우선순위가 부여된다는 사실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한 학생들은 지도교수가 기대했던 것보다 자신의 개별적인 관심 주제에 큰 흥미를 나타내지 않으며 자신의 연구 주제가 지도교수의 관심 영역에 부합되지 않으면 묵인된다는 사실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 실제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나 연구는 따로 시간을 내서 해야 되고. 그게 제일 큰 문제에요." (H, 사범대학 2학기, 여)

" 저희 연구실은 그래도 괜찮은데 옆 연구실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는 아예 교수님이 시간을 제한했어요. 저녁 10시까지는 오로지 연구실에서 프로젝트만 계속 하다가 10시가 넘어야지만 자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S, 공과대학 2학기, 남, 석박통합)

"저의 관심사는 관심 있어 하지 않으시고 선생님의 관심사 그 주제를 그냥 하라고 하세요. 그럼 그걸로 그냥 해야 해요. 불만이 있더라도 말을 못해요. 선생님이 예뻐하실 만한 기준이 아니거든요." (G, 사범대학 2학기, 여)

이처럼 대다수의 학생들은 지도교수와의 관계의 특성으로 종속적이고 위계적인 관계를 지목했다. 즉, 학부과정에서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나타났던 교수의 절대적인 권력이나 영향력을 대학원에 진학 후 새롭게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교수의 '권위'는 학생들로 하여금 전공 수업에 대한 솔직한 평가는 물론, 연구 수행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교수의 의견이나 연구 아이디어에 동의를 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학부는 내가 이 분야에 영원히 있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더 자유롭게 건의도 하고 강의 평가도 했던 것 같은데 대학원에서는 정말 소수의 학생들이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목 위까지 나와도 감히 전달하려는 생각이 없죠. 그래서 정말 교수님과의 관계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교수님한테 메일 보낼 때 마지막에 '올림'이라고 해야할지, '드림'이라고 해야 할지 그런 고민까지 해야 하고" (K, 사회대학 2학기, 여)

3) 학문 공동체의 공식적인 일원으로서의 소속감 기대

면담 결과 A대학의 석사과정 학생들은 입학 전 대학원생의 신분을 취득함으로써 본격적으로

해당 전공분야의 학문공동체의 일원의 자격, 즉 멤버십(membership)을 획득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전공영역에 진입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일원으로 입문하였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 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전공 영역의 연구 경향성, 논문이나 연구물의 주요 요소, 데이터 및 자료의 수집 및 연구방법 등 실질적 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비교적 높아졌음을 의미하며 이는 곧 학생에게 전문분야로의 입문발판으로써 기능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은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런 학회가 있다, 이론적 배경은 어떻게 쓰는 거고. 이런 걸 하나도 몰랐는데 어쨌든 입문을 한 거니까. 이 바운더리 안에 들어왔고 그 목적은 달성한 거고. 데이터, 자료들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는지, 경향 같은걸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는지. 그거는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전반적인 거에 대해 좀 알게 된 거." (H, 사범대학, 2학기, 여)

"나의 전문분야가 생겼다는 느낌이랑 그 분야에 대해 내가 박사는 아니지만 열심히 했으니까 '준전문가 수준의 능력을 쌓을 수 있었다' 이런 거는 좀 가치 있는 일 같아요."(P, 자연과학, 4학기)

한편 이들은 자신들이 대학원 진학 후 획득하게 될 학문공동체에서의 정체성이 지도교수와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학업 및 연구 협력을 통해 구현될 것이라고 기대하였으며 지도교수가 단순한 사제관계를 뛰어넘는 멘토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 입학 후 경험한 지도교수와의 상호작용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매우 미비하였으며 오히려 학부과정에서보다 약한 유대관계를 경험한다는 학생들의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록 학문 공동체에 진입하기는 하였으나 석사과정생이 가지고 있는 모호한 정체성 및 낮은 입지에 대한 아쉬움 또한 다수의 학생들에게서 발견되었다.

" 일단 교수님들은 석사과정한테 기대를 안 해요. 석사한테 바라는 역량은 그냥 말 잘 듣고, 행정처리, 일처리 같은 거 깔끔하게 하고." (U, 공과대학 3학기, 여)

" 전 교수님과 사제관계, 막 학문의 동반자, 나를 제자로 받아주고 열심히 이끌어주고 그런 걸 기대했는데 석사과정이라는 그런 관계가 아닌 거 같아요. 그런 관계는 박사과정에는 좀 맞는 것 같은데 석사는 학부생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H, 사범대 2학기, 여)

2. 석사과정 학생들이 경험하는 대학원 교육

1) 자율과 방임의 경계

연구에 참여한 다수의 석사과정 학생들은 대학원 진학 이후 가장 어려웠던 부분으로 뚜렷한 지침이 제공되지 않는 방임적인 문화를 지적하였다. 입학 후 다양한 정보 제공 및 인간관계 향상 프로그램(예: 신입생 워크샵, 학과 MT)이 제도적 수준에서 학과 또는 전공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되는 학부 과정에서 학생들은 비교적 수동적인 자세로 대학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지만 이와 달리 대학원에서는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정보를 획득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었다.

> “ 스스로 찾아가지고 공부하는 게 중요하기는 한데..그런 가이드라인 이런 게 없어서 힘들어요. 나름 석사생인데 어쩌면 어린애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가이드라인 이런 게 대학원생도 있었으면 좋지 않았나.”(Q, 공과대학 3학기, 남)

> “저는 주입식 교육에 익숙해서 그런지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좋게 말하면 자유롭고 나쁘게 말하면 방임인데요. 결정하는 것도 내 몫, 책임도 내 몫” (R, 자연대학 3학기, 남)

더 나아가 입학 전 지도교수를 통해 다양한 멘토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업 및 생활 측면에서 지도교수의 세밀한 지도를 받는 학생들은 거의 드물었다. 특히 상당수의 학생들은 논문 주제를 설정하고 집필하는 과정에서 지도교수의 적극적인 개입 또는 도움이 없이 스스로가 완성해나가야 한다는 데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실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학생의 학위논문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 자연대학이나 공과대학보다는 학생 스스로 주제를 찾아야 하는 인문대학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하지만 이공계열에서도 논문 주제를 상대적으로 쉽게 설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실질적인 연구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피드백은 적극적으로 받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너무 안 도와주셔서 불만이었어요. 정말 안개 속을 헤매는 느낌....연구주제를 좀 약간만 좁혀주시면 제가 더 빨리, 편하게 할 수 있을텐데 선생님 스타일은 학생이 좀 뒹굴어볼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게 역할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M, 인문대학 5학기, 여)

> “ 연구물에 대한 피드백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학원 와서는 피드백을 전혀 못 받고 제출하

기만 하면 거기서 끝이거든요. 피드백만 좀 더 있으면 더 발전시켜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텐데.” (S, 공과대학 2학기, 남)

이처럼 학생들은 이러한 구체적인 지침 또는 지도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야 하는 지식 생산자로의 역할 전환을 강요받고 있었다. 다수의 학생들은 자신들이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받았던 학부교육을 고등학교 교육의 연장선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오랜 기간 주입식 교육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거나 새로운 발상을 구현할 것을 요구하는 대학원의 새로운 풍토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즉, 이들에게 석사과정이 부여하는 신분은 새로운 전공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 학생임과 동시에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야 하는 연구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건 결국 학부 교육이랑 연관이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토론 능력이나 자신의 주장을 세우고 검증 받는 그런 훈련이 학부과정에서부터 되어 있어야 하는 건데 지금 학부교육은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고등학교의 연장선이니까...갑자기 대학원 와서 이렇게 연구하라고 하면 힘들죠.” (C, 인문대학 3학기, 남)

“ 논문을 써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저는 압박으로 느껴졌어요. 석사과정 2년이라는 시간동안 논문을 완성해야 한다는 게. 그 짧은 기간에 이렇게 큰 걸 해내야 한다는 것에... 교수님의 지도도 없고 혼자 다 해야 되니까. 어찌 보면 대학원에서는 당연한 건데 그걸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처음 들어왔을 때는 당황스러웠어요.” (F, 사범대학 3학기,여)

2) 불친절하고 불성실한 교육의 양면성

석사과정 학생들은 대학원에 진학한 이후 ‘스스로’ 알아서 모든 것을 해야 하는 본격적인‘성인학습자’로서의 적극성을 요구받게 되며 이는 앞서 언급한 방임적 문화와 직결된다. 학생들은 전공과 관련된 지식이나 연구를 하는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이나 피드백이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대학원생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다 스스로 배우고, 익히고, 완성해야 한다는 대학원 내에서의 보편적이고도 암묵적인 규범을 인식하고 있었다.

“ 원래 대학원생은 뭐 가르쳐 주는 게 아니다 이런 식의 의식이 굉장히 학교 전체에 팽배한 것 같은데 그게 저는 잘못 된 것 같아요. 그냥 원래 이렇게 해야 한다는 인식 그 자체가.”(P, 공과대학 4학기, 남)

“ 뭘 가르쳐주지도 않으면서‘이미 다 알고 있지?’ ‘이걸 왜 몰라?’ ‘원래 다 알아야 하는거야’ 라는 식으로 항상 교수님이나 선배들이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석사과정 학생이

들어오자마자 무슨 전문성이 있다고 다 알겠어요. 그냥 혼자 알아서 찾아서 하라는 그런 강요가 이상하고 잘못된 것 같아요." (L, 사회대학 4학기, 남)

또한 다수의 학생들은 전공 및 학과의 교수들이 대학원 수업에서 보이는 태만함과 불성실함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특히 수업 내용에 대한 교수의 준비 부족, 교수의 연구 주제에 따라 지속적으로 바뀌는 수업 내용에 대한 불만이 빈번하게 지적되었으며 학생들의 발제 중심의 수업 방식을 무책임하고 비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 대학원 수업의 특징 자체가 휴강이 잦다는 점인데요. 그리고 교수님이 직접 뭘 가르친다기 보다 학생들한테 다 발제해오라고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별로 좋은 수업이 아닌 것 같고 학생에게 배우는 건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G, 사범대학 2학기, 여)

" 저희 과정은...약간 학생들 대상으로 돈 버는 것 같아요. 대학원 장사. 학위 장사.." (J, 사회대학 3학기, 여)

더 나아가 학생들은 학과 및 전공 과정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에 상당히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는데, 주로 강좌 간의 연계성의 부족, 교육과정의 비체계성, 학생의 수요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강좌개설 등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거론되었다. 개설 강좌들은 강의의 질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설되며 동일 전공임에도 불구하고 이 강의들은 서로 연계되지 않고 각기 개별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솔직히 수업은 완전 불만족(스러워요)...교수님들이 되게 체계적이지 않고 ...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것 자체에 관심이 없으세요. 그냥 해야 하는 의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T, 공과대학 2학기, 여)

"시스템이 전혀 아무 상관이나 관련도 없는 수업들을 한꺼번에 들었을 때 학생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지 의문스럽긴 해요. 좀 겹쳐야 시너지 효과도 나고. 학생들에게. 대학원 온 학생들은 굉장히 큰 기회비용을 가지고 들어온 건데 시간을 그렇게 날리고. 좀 약간 서러워요."(H, 사범대학 2학기, 여)

한편, 모순적이게도 석사과정 학생들은 이러한 불친절하고 불성실한 대학원 교육을 통해 일정 부분 긍정적인 경험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도교수 및 전공 차원의 적극적인 학습 지도가 불충분한 환경 속에서 스스로 '부딪히는' 훈련을 통해 입학 전보다 다양한 사고의 전환 및 확장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즉, 학생들은 수업 또는 교수와의 상호작용에 의존하는 학습 방식이 아닌 스스로 공부하고 사고하는 훈련을 통해 입학 전보다 전공 영역에서 학문적

으로 통용되고 인정되는 사고방식으로 논리의 체계를 구성하는 방법을 인지하게 되었고, 궁극적으로는 전문적인 식견이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과정적 측면에서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었다.

"전공에 대한 생각이나 이 작품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제 눈이나 생각이 생겼고... 제가 학부 때(처럼) 막연히 관심을 가졌던게 아니라 이제 석사 때는 이런 작품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뭔가 교육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런 입장차이가 좀 다르죠. 시각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D, 인문대학 6학기, 여)

"예전까지는 내가 몰랐던 세계가 많았다는 것. 세계 각지의 연구실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논문으로도 읽어보고 '나도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있다', '새로 배워간다', '새로 해나간다'는 것이 제일 만족스러웠어요."(O, 자연대학, 2학기)

또한 석사과정 학생들은 친밀한 동료 및 선배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대학원 생활에서 나타나는 불분명한 지침, 교육과정의 비체계성, 공식적인 정보의 부족, 피드백의 결여 등의 애로사항을 보완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연구 및 전공분야와 관련된 학문적인 배움뿐만 아니라 학과의 문화나 교수와의 관계 등과 같이 비공식적인 정보를 획득하는 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수의 면담 참여자들은 대학원 생활에서 인식하는 가장 효과적인 배움의 경로로 지도교수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보다는 전공 내 동기 및 선배들로부터 나타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학생들 간의 이러한 상호작용은 인문계열에서는 주로 잘 계획되고 정돈된 수업에서, 이공계열에서는 연구실, 실험실 과제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비고츠키의 근접발달단계가 있잖아요. 개인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위에 누군가의 스캐폴딩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게 선배들을 통해서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중략) 뭔가 따라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런, 교수님 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제가 따라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같이 뭔가 협력작업을 했을 때 더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F, 사범대학, 2학기)

"연구를 대하는 태도를 선배한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선배한테는 어떻게 고민을 하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지 배우고...같은 관심 분야를 같는 그 계통끼리는 굉장히 활발하게 질문도 하고, 같이 논문도 쓰고, 이게 뭔가 선배가 하드캐리 해준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활발한 것 같아요." (R, 공과대학, 2학기, 남)

3. 또 다시 시작되는 진로 고민

대학원에 진학하기 전 대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높은 학문적 의욕과 장기적인 진로 계획을 구축하고 있었다는 특징이 있다. 이들에게 석사과정은 궁극적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당연한 경로라고 인식되고 있었으며 박사학위 취득 이후의 진로(예: 박사 후 연구원 과정, 국책연구기관에서의 연구원 경력을 거친 후 궁극적으로는 교수로 채용되길 희망)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이들의 이러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진로 계획은 석사과정의 경험으로 인해 대부분 단기적이고 모호하게 변하였고 결국 '박사학위 취득'이라는 최초의 계획을 수정하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처럼 이들의 진로 계획이 변경된 주요 배경으로는 박사학위 취득에 대한 기회비용을 인지하였거나, 석사과정 경험을 통해 스스로의 지적 능력이나 연구 수행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위축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원래는 막 5년치 계획을 예전에 세우고 그랬는데 지금은 한 학기 기준으로 그냥 살아요. 하루살이 같이" (O, 자연대학 2학기, 남)

"솔직히 얘기하면 박사를 해서 투자해야 하는 시간과 돈에 비해 얻는 게 그닥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비효율적이에요." (T, 공과대학 2학기, 여)

"애초 생각했던 과학자의 모습, 연구원의 모습을 과연 스스로 이뤄낼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많은 상황이고..." (R, 자연대학 3학기, 남)

더 나아가 상당수의 학생들은 박사과정 선배들의 대학원 생활을 관찰하며 부정적인 간접 경험을 접하고 박사 진학을 포기하거나 연기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이들이 관찰한 박사과정 선배들의 대학원 생활은 프로젝트 관리, 행정 업무, 후배 대학원생 지도 등 여러 가지 '잡일'에 매우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비추어지고 있었으며 이는 박사 진학을 고려하는 석사과정 학생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박사오빠들은 자기들이 맡은 책임감이 너무 커요. 교수님은 연구를 안 하시고 박사 위주로 돌아가는 실험실이다 보니까 그 포지션이 저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처음에는 박사학위 취득을 되게 이상적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고 있어요."(U, 공과대학 3학기, 여)

한편, 박사학위 취득에 대한 계획은 변동이 없으나 국내 진학이 아닌 국외 진학으로 방향을 전환한 학생들도 상당수 있었다. 이들은 A대학의 대학원 커리큘럼 및 지도교수의 불충분한 지도에 대한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대학원의 불친절한 교육과 더불어 박사과정생들을

위한 커리큘럼이 따로 마련되어 운영되기보다는 석사과정의 커리큘럼을 반복 수강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흥미롭게도 교수의 강력한 권유로 인해 타의적으로 유학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특히 이공계열보다는 인문사회 계열에서 훨씬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한편 이공계열 학생들의 경우에는 인문사회 계열 학생들보다 국내 박사학위의 가치나 입지 등을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 "전공에서 개설되는 수업이 다 너무 비슷해요. 다양성이 부족한 것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제가 박사 유학을 가려고 하는 이유도 수업 개설이랑 관련이 있어요. 이미 학과에서 무슨 무슨 수업이 열릴 거를 다 알고 있는데 그거를 박사에서 또 똑같이 들어야 한다니..." (M, 인문대학 5학기, 여)

> "저는 사실 처음에는 유학을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교수님과 면담을 하면서 미국 유학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느낀거는 교수님들은 제자들이랑 같이 연구를 하는 것보다는 유학을 많이 보내는 걸 더 뿌듯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주요 임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사명이랄까?"(B, 인문대학 1학기, 여)

> "저희 전공의 전반적인 분위기나 정체성은 '유학 양성소?' 교수님들한테 국내 박사 하면 안 되냐고 여쭤보면 나가라고 하시고. 전공에 계신 교수님들이 다 미국 박사 출신이니까" (J, 사회대학 3학기, 여)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국내 주요 연구중심대학에 재학 중인 21명의 석사과정 학생들의 대학원 학습 경험을 분석하고 이러한 대학원 과정의 신규 진입자의 관점을 통해 살펴본 국내 대학원 교육의 다양한 제도적, 문화적 특징 및 쟁점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 발견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석사과정 학생들은 대학원에 진학하기 전 각기 다른 대학원 생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상당 부분 대학원 생활에 대한 막연하고도 왜곡된 기대가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기대와 실제의 간극 간의 차이는 진학 전에 획득한 정보의 양과 질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이들은 대학원에 진학하면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만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학습·연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경험한 대학원 생활에서는 본인의 관심주제 보다는 지도교수의 관심 주제에 더 높은 우선순위가 부여된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학생들은 대학원생의 신분을 취득함으로써 본격적으로 해당 전공분야의 공식적인 일원, 즉 멤버십을 획득하여 지도교수 및 동료들과 자유롭고 활발한 학술적 교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대학원 생태계 내에서 석사과정생의 모호한 역할기대

와 낮은 위계를 경험하게 된다. 이는 대학원 사회화 모형 중 '예상 단계(anticipatory stage)'에서 제시하는 대학원 신입생들의 입학 전 기대와 실제 간의 부조화(mismatch) 현상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Weidman et al, 2001).

둘째, 학생들은 대학원 입학 후 다양한 요소의 '전환'(transition)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전환은 우선 학습 및 역할적 측면에서 나타난다. 이들이 학부과정에서 경험한 학습은 '지식 소비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다면 대학원에서는 지식을 소비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지식을 새롭게 생산 할 수 있는 '연구자'로서의 역할을 강요받고 있었다. 문제는 대학원에 전반적으로 팽배해 있는 방임적 문화에 의해 학생들은 효과적인 지식 생산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도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학생들은 대학원 코스웍 시스템을 '붕괴 수준'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불만족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공식적인 교육과정보다는 동료 및 선후배들과의 상호작용에 의지하며 훨씬 더 효과적인 학습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 및 지원 부족 현상으로 인해 학생들이 겪는 전환의 어려움은 비단 국내 대학원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및 유럽 지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어 문제점으로 제기된 바 있다(Austin, 2002; Lovitts, 2005). 따라서 학생들의 지식생산자로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효과적인 학습 지원이 전공차원에서는 물론 지도교수로부터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학생들의 상당수는 학부교육과 대학원 교육의 연계성을 매우 낮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대학원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역량 (예: 비판적 사고능력, 문제제기 능력)을 함양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석사과정 학생들은 2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수행해야 할 과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으로 (예: 코스웍, 종합시험 및 학위논문) 이들이 경험하는 학습 부담은 매우 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편, 흥미롭게도 대학원의 이러한 방임적 문화는 학생들의 학습경험에 일부분 순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즉, 학생들은 더 이상 수동적 형태의 학습 방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스스로 부딪히는 훈련을 하게 됨으로써 과거에 비해 사고력 및 시각의 확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사과정 학생들이 대학원에 진학한 후 경험하게 되는 또 다른 전환적 요소로는 '인간관계' 측면을 들 수 있으며, 이 중 지도교수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한다. 학생들은 대학원에 진학 후 학부과정과 비교했을 때 교수의 권위 및 권력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되며 이러한 종속적인 관계는 학생들로 하여금 오히려 학부과정에서보다 더욱 수동적이고 수용적인 학습 태도를 갖게 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교수의 권위에 맞설 경우에 감수해야 할 불이익 (예: 추천서, 졸업 기간, 프로젝트 참여 및 인건비 등)을 고려하며 이로 인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면담 결과 일부 학생들은 교수의 눈 밖에 나지 않도록 자신의 의지나 선호와는 관계없이 교수의 요구(예: 교수 개인의 연구나 사업에 강제 동원)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종속적 관계 속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과 지도교수

의 과업을 처리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는 미국의 대학원 학생들이 주로 자신의 개인적 삶과 학업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Gardner, 2007). 교수와 학생 사이의 계약적 관계 (contractual relationship)가 상대적으로 더 제도화 되어 있는 미국과는 달리 한국의 대학원에는 위계문화와 권위적 문화가 더욱 깊게 침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오늘날 한국 대학원 교육의 모습을 형성한 역사적 경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초기 한국의 대학은 교수의 강한 권위를 기초로 한 도제식 교육에 중점을 두는 독일식 대학원 제도를 차용한 일본의 고등교육 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해방 이후에는 미군정의 개입으로 인해 초중등 교육은 물론 학부 및 대학원 교육의 시스템도 미국식의 제도로 전환하였다(Shin et al., 2016). 즉, 한국의 대학원의 표면은 학문 자율성과 학내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미국식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지만 그 근본에는 독일과 일본의 대학원 모형 속에 내재되어 있는 권위적인 문화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더 나아가 현재 국내 대학원 교육의 문화는 도제식으로 맺어진 교수와 학생의 관계에 한국 사회 특유의 유교적 문화가 혼합되어 발생한 산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가장 흥미로운 결과 중 하나는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나타났던 진로 계획의 수정 또는 변형 부분이다. 이들은 대체적으로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매우 장기적이고 낙관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진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진로 계획은 석사과정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단기적이고 불확실하며 일부 경우 비관적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석사과정 학생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대학원 교육을 바탕으로 국내 박사 진학에 대한 고려를 철회하고, 더 나아가 국내대학의 박사학위 가치에 대한 회의감을 강하게 드러내기도 하였다. 특히 일부 전공의 상당수의 학생들은 졸업 후 해외유학을 권장하는 지도교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진로 설정에 크고 작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전히 국내 대학원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유학 권장 풍토'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제안할 수 있는 제언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보다 효과적인 대학원 적응을 위하여 대학원의 실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대학원 진학에 관심 있는 학부 재학생 또는 졸업생들에게 제공 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학원 진학 전 인턴경험이 보편화되어 있는 이공계 학생들에 비하여 인문사회 계열의 학생들이 경험하는 대학원 생활에 대한 기대와 실제의 간극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과 및 전공 차원에서 효과적인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고 학부와 대학원 과정 간의 교류가 보다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소수에 불과했지만 대체적으로 대학원 생활에 전반적인 만족을 느끼고 있던 학생들의 공통점은 바로 지도교수와의 원만하고도 합리적인 관계 형성과 지속적인 피드백 제공에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대학원생 사회화 과정에

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지도교수와의 관계를 제시한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Hopwood, 2010). 따라서 학생들에게 보다 적절하고 효과적인 지도와 지원이 지도교수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전공 및 학과의 노력 및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학생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대학원 코스웍 커리큘럼의 개선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전공에서 개설되는 대다수의 과목들이 자신의 관심 주제와 연관이 없거나 선택의 폭이 매우 제한적인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와 더불어 대학원 교육에서 효과적으로 함양되어야 할 학생들의 다양한 역량 (예: 비판적 사고능력, 문제제기 능력 등)이 강화될 수 있는 수업 및 세미나가 개설될 필요가 있으며 학생들의 발제를 기반으로 한 제한적 범위의 수업이 아닌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teaching) 방법도 수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일부 전공의 경우 상당수의 학생들은 졸업 후 해외유학을 적극 권장하는 지도교수로 인해 진로 설정에 크고 작은 영향을 받고 있었다. 국내 대학원 교육이 보다 진정한 의미의 세계 수준의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우리나라 대학원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유학 권장 풍토'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하며 해외 유학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자생적으로 양질의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고자 하는 대학 교원들의 노력이 더욱 적극적으로 구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주요 연구중심 대학의 석사과정생들의 학습 경험을 통해 나타나는 대학원 교육의 특징 및 쟁점들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학원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문화적 그리고 제도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대학원 교육의 특징이 전공별로 어떻게 세부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는지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A대학이라는 단일 사례를 연구 대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대학원 교육에서 나타는 모든 특징을 본 연구의 결과가 일반화 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지만 해당 대학이 국내 고등교육 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징성을 비추어 보았을 때 타 대학기관에도 시사 할 수 있는 제언점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평판 및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학생들의 대학원 학습 경험에 어떠한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지 추후 연구를 통해 살펴본다면 매우 흥미로울 것으로 판단된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 대학원 교육의 특징을 둘러싼 보다 명확한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석사과정생 뿐만 아니라 박사과정생의 학습경험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이들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또한 학생들의 개인적 특성 (예: 성별, 파트타임 학생)에 따라 나타나는 학습 경험의 차이가 무엇인지 분석해 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강병숙(2013). 교육대학원 초등음악교육전공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대학원생의 인식. **교육논총, 33**(2), 29-53.

김민선, 양지웅, 연규진(2016). 이공계 여성 대학원생의 진로선택과 대학원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1), 191-216.

김병주, 조규락, 최손환, 서지영(2005). 델파이조사를 통한 두뇌한국(BK) 21 사업의 공과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3**(3), 427-452.

김종영(2008). 글로벌 문화자본의 추구 - 미국 유학 동기에 대한 심층 면접 분석. **한국사회학, 42**(6), 68-105.

김진영(2015). BK21 사업 참여가 교수연구 성과에 미친 영향: 학문분야 별 차이를 중심으로. **재정학연구, 8**(1), 1-32.

대학알리미(2016). 재적 학생 현황(대학원).

박진희, 박희제(2008). 실험실 문화와 암묵지 - 한국 이과 대학원생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85-95.

백일우, 박경호(2007). 1단계 BK21 사업이 대학의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5**(4), 435-453.

서울대학교 인권센터(2015). 2014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인권실태 및 제도개선 조사보고서.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통권 제1호.**

송창용 외(2012). 대학원의 교육·연구 경쟁력 확보 방안. 교육과학기술부.

송창용(2013). 대학원 교육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핵심과제 설정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신현석(2011). 대학원 체제의 미래 비전과 추진방안 탐색. **한국교육학연구, 17**(1), 156-192.

안상수, 박성정, 최윤미, 김금미 (2011). 성평등 실천 국민실태조사 및 장애요인 연구(Ⅲ): 대학생활 영역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안유리, 이대균(2012). 대학원 생활을 병행하는 유아교사들의 경험과 의미,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열린유아교육연구, 17**(6), 27-52.

우양호, 고경동(2015). 행정학 분야 대학교수의 연구생산성과 그 영향요인: 개인적 특성인가? 환경적 요인인가?, **행정논총, 53**(2), 345-380.

이선정, 신혜원(2008). 서울소재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실태와 교육대학원생의 인식.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0**(4), 173-186.

이유경(2014).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원 문화와 학업 적응에 대한 연구. **이중언어학, 55,** 149-284.

임승렬(2005). 유아교육전공 교육대학원 교육에 대한 학생과 교수의 인식과 요구. **유아교육연구, 25**(4), 105-132.

장수명, 최상덕(2009). 대학 특성화와 연구 성과. **교육재정경제연구, 18**(1), 167-195.

전종희(2013). 공과대학 대학원에서의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양상 탐색,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27**(1), 1-34.

정은성(2015). 음악교수법연구: 피아노 교수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피아노교수학 전공 대학원생의 인식 조사. **음악교수법연구, 16,** 183-204.

진미석, 신선미, 이영민 (2007). 여성연구원의 연구단절 최소화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최종인. (2007). 사회화 개념의 역사적 전개에 관한 고찰-서양사상사를 중심으로. **교육문제연구, 28,** 23-47.

최진호(2010). 음악교육전공 대학원생들의 교육대학원 교과과정 운영체제에 대한 만족도 조사. **음악교육연구, 38,** 149-171.

한국교육개발원(2015). 2015년 간추린 교육통계.

한국교육개발원(2016). 교육통계연보.

한상연, 김안나(2009). 국내 박사학위과정의 현황과 문제: 제도 개선을 위한 탐색적 분석. **교육과학연구, 40**(3), 265-284.

Austin, A. E. (2002). Preparing the next generation of faculty: graduate school as socialization to the academic career.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73,* 94–121.

Baird, L. L. (1993). Using research and theoretical models of graduate student progress. *New Directions for Institutional Research, 80,* 3-12.

Becher, T. (1981). Towards a definition of disciplinary cultures. *Studies in Higher Education, 6,* 109–122.

Bernard, H. R. (1988). *Research methods in cultural anthropology.* Newbury Park, CA: Sage. p. 117.

Biglan, A. (1973a). The characteristics of subject matter in different academic area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57*(3), 195–203.

Biglan, A. (1973b). Relationships between subject matter characteristics and the structure and output of university department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57*(3), 204–213.

Brim, O. G., & Wheeler, S. (1966). *Socialization after childhood.* J. Wiley.

Bucher, R., & Stelling, J. G. (1977). *Becoming professional.* Sage.

Council of Graduate Schools (1990). *The doctor of philosophy degree: A policy statement.* Washington, DC: Author.

Gardner, S. K. (2007). “I heard it through the grapevine”: Doctoral student socialization in

chemistry and history. *Higher Education, 54*(5), 723-740.

Gardner, S. K. (2008a). "What's too much and what's too little?": The process of becoming an independent researcher in doctoral education.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79*(3), 326-350.

Gardner, S. K. (2008b). Fitting the mold of graduate school: A qualitative study of socialization in doctoral education. *Innovative Higher Education, 33*(2), 125-138.

Gardner et al. (2012). Interdisciplinary doctoral student socializ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Doctoral Studies, 7,* 377-394.

Gardner, S. K., & Gopaul, B. (2012). The part-time doctoral student experi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Doctoral Studies, 7,* 63-78.

Golde, C. M. (1998). Beginning graduate school: Explaining first-year doctoral attrition. *New Directions for Higher Education, 101,* 55-64.

Hopwood, N. (2010). Doctoral experience and learning from a sociocultural perspective. *Studies in Higher Education, 35*(7), 829-843.

Kuhn, T. S. (1962).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Kwon, Y. (2013). The sociocultural adjustment of Chinese graduate students at Korean universities: A qualitative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7*(5), 536-549.

Lovitts, B. E. (2001). *Leaving the ivory tower: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departure from doctoral study.* Rowman & Littlefield.

Lovitts, B. E. (2005). Being a good course-taker is not enough: a theoretical perspective on the transition to independent research. *Studies in Higher Education, 30*(2), 137-154.

Neumann, R. (2001). Disciplinary differences and university teaching. *Studies in Higher Education, 26*(2), 135-146.

Rosen, B. C., & Bates, A. P. (1967). The Structure of socialization in graduate school. *Sociological Inquiry, 37*(1), 71-84.

Sowell, Robert. (2007). Ph. D. Completion and Attrition: Baseline Program Data, CGS Annual Meeting.

Shin, J. C. (2009). Classifying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n Korea: a performance-based approach. *Higher Education, 57,* 247-266.

Shin, J. C., Lim, Heejin, Kim, Seungjung. (2016). Trends and issues of doctoral education in Korea. 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cademic Profession in Knowledge Society.

Staton, A. Q., & Darling, A. L. (1989). Socialization of teaching assistants. *New directions for teaching and learning, 39,* 15-22.

Thornton, R., & Nardi, P. M. (1975). The dynamics of role acquisi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0*(4), 870-885.

Tinto, V. (1975). Dropout from higher education: A theoretical synthesis of recent research.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45*(1), 89-125.

Trow, M. (1974). Problems in transition from elite to mass higher education. *Policies for Higher Education.* Paris : OECD.

Turner, J. L., Miller, M., Mitchell-Kernan, C. (2002). Disciplinary cultures and graduate education. *Emergences, 12*(1), 47-70.

Ward, C., Bochner, S., & Furnham, A. (2001). *The psychology of culture shock.* Routledge.

Weidman, J. C., Twale, D. J., & Stein, E. L. (2001). Socialization of graduate and professional students in higher education: A perilous passage? *ASHE-ERIC Higher Education Report, Volume 28,* Number 3. Jossey-Bass Higher and Adult Education Series. Jossey-Bass, Publishers, Inc., 350 Sansome Street, San Francisco, CA 94104-1342.

Ylijoki, Oili-Helena (2000). Disciplinary cultures and the moral order of studying - A case-study of four Finnish university departments. *Higher Education, 39,* 339-362.

* 논문접수 2016년 5월 2일 / 1차 심사 2016년 6월 9일 / 2차 심사 2016년 7월 26일 / 게재승인 2016년 9월 7일

* 임희진: 영국 노팅험 대학교에서 경영학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동 대학원의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하였다.
* E-mail: liyyhl@snu.ac.kr

* 김소현: 고려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행정전공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 E-mail: cindy9004@snu.ac.kr

* 박혜연: 이화여자대학교 과학교육과를 졸업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행정전공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 E-mail: hyeyeonparkl26@snu.ac.kr

* 김경호: 서울대학교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행정전공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 E-mail: hosinjung@snu.ac.kr

Abstract

A Study on Master Students' Graduate School Experience in a Korean Research University

Lim, Hee Jin*
Kim, So Hyun
Park, Hye Yeon
Kim, Kyeongh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master students' learning experience in a Korean research university. The study interviewed total number of 21 master students and the major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ing. First, most of students had ill-defined expectation of graduate school due to the lack of information they had in prior to enrolling to graduate program. Students expected that they would be able to acquire official membership to the academia once enrolling to graduate program but soon they realized low status of master students in the academic community. Also, unlike undergraduate programs where students are required to take credits from various subjects regardless of their own interest, master students expected that they would be able to concentrate on the areas of study that meet their particular interest. However, most students' research interests have been replaced by their advisor's interest where students experienced difficulty in adjusting 'balance' and 'priority' between their own interest and their advisor's. Second, master students pointed out that the most prevailing culture in graduate school is 'neglection' in which they were left on their own to work without clear guidance given by their faculty and department. Also, students experienced hierarchical relationship among their advisor and senior students which is one of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Korean graduate school culture. Lastly, it was found that graduate school experience influences on master students' career plan. In prior to enrolling to graduate program, students had long-term and specific career plan after graduation, but during the course of their study, most of students' career plan have turned vague and pessimistic.

Key words: Graduate education, master student, research university, graduate school culture

* First author, Ph.D Candidate, Seoul National University